

시끼보, 해외 거점을 활용한 생산

판매의 전량 세계화 추진

시끼보가 경영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합판(合辦)회사인 “머메이드 · 텍스타일(Mermaid Textile : 약칭 MTI ; 멀텍스)”은 1974년에 조업을 개시하였다. MTI는 일본계 합판회사로서는 보기 드물게 방직, 제직, 편성뿐만 아니라 직물과 편성포를 가공할 수 있는 다기능(多機能)공장이다. 시끼보는 이 합판회사를 시끼보의 영업활동에 활용하기로 경영방침을 정하고, 주식을 증자(增資)함으로써 1997년경까지 본사와 경영을 연결할 자(子)회사로 만들었다. 자회사가 됨에 따라 각종 설비도 새롭게 보강하고, 새 기술도 급속히 이식(移植)하였다. 그 당시까지 일본에서만 생산해 오던 각종 옷감도 이 자회사에 위탁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MTI의 생산량 중 70%가 본사의 위탁을 받은 것들이다. 이와 같이 위탁을 받아 생산된 제품은 시끼보가 모두 판매하고 있다. MTI의 공장부지 내에는, 시끼보가 전액 출자로 설립하여, 1994년에 조업을 시작한 봉제 자회사인 “머메이드 · 가먼트(Mermaid Garment : 약칭 MGI)”가 있다. 봉제자회사는 중국에도 시끼보가 전액 출자로 설립하여 1996년에 조업을 시작한 “상하이 · 시끼보 · 복식(上海 · 敷紡 · 服飾)”이 있다.

시끼보는 지금 일본 내에 있는 “시끼보 · 고난(江南)”공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 내 관계회사 뿐만 아니라, 해외의 MTI를 비롯한 관계회사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끼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있다. 시끼보는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면에서도 다국적화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 수출되고 있는 상당규모의 셔츠감은 이 판매망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다. 시끼보가 기획하고 있는 글로벌 · 오퍼레이션(global operation)이 서

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의료 제1사업부 - 기술 이전으로 MTI에서 셔츠감, 작업복지도 생산

직물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의료(衣料) 제1사업부는 다른 동업자들보다 앞서서 인도네시아의 자회사인 MTI를 생산거점으로 하여 셔츠감의 영업활동을 강화하였다. MTI는 방적부터 가공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미 기술이전으로 품질이 일본 제품수준이면서도 생산원가가 저렴하여 다른 제품과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극세(極細)폴리에스터로 뽑은 가공포나 “아젝크”의 동생뺄 된다고 할 수도 있는 “에레미아”와 같은 특수 셔츠감의 생산기술이 MTI에 전수되어, 그 동안 일본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던 옷감을 인도네시아에서도 만들 수 있게 하여 이들이 히트를 치고 있다.

“아젝크”는 사용섬유와 변수가 다른 실로서, 많을 때는 경위사에 총 4종의 실을 사용하여, “아제꾸라”라고 하는 일본 고대 창고 건물의 구조로 모양이 서로 다른 목재로 벽면이 구성되어 있듯이, 실의 종류나 굵기를 달리하면서 경위로 적절히 섞어 배열하고 있다. 그리하여 직물에 입체감이 있는 요철(凹凸)을 만들어, 피부와의 접촉 면적을 줄이면서 통풍(通風)도 잘 되게 할뿐만 아니라 세라믹스(ceramics : 비금속 무기질 고체 재료)가 들어 있는 폴리에스터도 섞어 넣어 태양광선에 대한 반사성도 있는 가공포이다. “에레미아”는 극세 폴리에스터 혼(混)사와 중공(中空)폴리에스터 혼사로 “아제꾸라”조직으로 제직된 가공포이다. 2002년 여름 시장에는 2001년 판매량의 2배를 출하하였으며, 2003년 여름에는 안정된 수요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면 100수 쌍사급의 정방교연사로 짠 셔츠감도 MTI에 3년 전부터 이식된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현재는 이 셔츠감이, 시끼보가 MTI에 위탁하

여 생산하고 있는 셔츠감 중 가장 큰 품종이 되었다. 이 가공포에 흡수속건(吸水速乾)가공이나 치유(治癒)기능을 가공한 상품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 외에도 시끼보는 폴리에스터/면 혼방의 작업복 소재도 MTI에 위탁하여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 방직설비에 이어 염색가공설비도 광폭화(廣幅化)하여 작년(2002년) 가을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하였다. 추가로 발주를 받을 때 전번에 염색된 색의 재현성(再現性)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작업복 소재는 아주 까다로운 분야로서 일본계 합판회사에서도 일본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MTI는 이 작업복 생산에 도전함으로써 셔츠감 분야만 아니라 작업복 분야에서도 독특한 기술 영역을 구축하려고 있다.

금년 1월부터 34수 단사 평직이나 34수 쌍사 능직과 같은 베이직(basic)한 가공포를 10개 작업복 제조기업에게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아직은 효율을 무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겨우 맞추고 있는 형편이므로 생산효율은 겨우 70~75%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나 고객들의 기대가 커서, MTI는 생산효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하고 어려운 소재도 생산할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의료 제2사업부

니트감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衣料) 제2사업부에서는 작년 10월에 해외기획과(海外企劃課)를 새로 만들었다. 이 과에서는 MTI와 봉제 자(子)회사인 MGI를 생산거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MTI가 편성지의 생산시설을 활용한 영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인도네시아의 섬유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어, MTI의 영업능력만으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그리하여 시끼보는 MTI의 편성지 생산능력과 MGI의 봉제능력을 시끼보·그룹 전체의 영업활동에 연결시켜 활성화하는 방침을 작년 후반에 결정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작년 9월까지 가동율이 아주 좋지 않았던 MTI의 편성지 부문을 작년 10월부터 완전 가동하게 되었다.

시끼보의 의료 제2사업부는 본사의 기술을 전수 받은 MTI만의 우수한 소재 생산기술과 원사생산에서부터 MGI의 봉제까지를 한 부지 내에서 일괄 생산할 수 있는 확실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두 합판회사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MTI에는 정방이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노일(noil) 등의 미이용면(未利用綿)으로 뽑은 순면사 “러프코트”나, 열대지방의 “카폭(kapok)”섬유와 면과의 혼방사, 초장면 “수피마(Supima)”로 뽑은 60수 쌍사에서 110수 쌍사급까지의 세번수 순면사 방적기술도 이미 전수되어 있다.

편성공정에서도 면사와 특수 폴리에스터사의 교편(交編)으로 흡한속건성(吸汗速乾性)이 좋은 “콘프니트”의 생산기술도 전수되어 있다. 스트레치성이 있는 폴리에스터로 짠 “스트레치·콘프니트”도 생산이 가능하다. 수피마로 뽑은 면사로 짠 상품도 생산하고 있다.

가공공정에서는, UV컷(cut)성이 있는 “니트·사라톤”, 소취성이 있는 “수피·아니엘”, 보습성이 있는 “알로에 쥬” 등의 여러 가지 기술도 전수되어 있다.

중국에는 시끼보가 전액 출자한 봉제회사로서 “상하이·시끼보·복식(上海·敷紡·服飾)”이 있다. 그 동안 시끼보 전액 출자의 니트·봉제 위탁회사로서 오사카에 있는 “머메이드·어패럴”이 중심이 되어 “상하이·시끼보·복식”을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제2사업부에서도 이 회사의 활용을 늘려나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MGI는 폴로(polo) 셔츠 등, 스포츠 관계 의류의 봉

제를 많이 해 왔는데, “상하이 · 시끼보 · 복식”은 부인 옷을 많이 하고 있어, 각 회사의 장점을 살리면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 홍콩에 있는 현지법인 “시끼보 · 홍콩”을 활용한 영업활동도 새롭게 시작한다. 광둥성(廣東省)에는 “수비의무계약(守備義務契約)”으로 특수가 공기술을 전수해 준 공장이 세 개 있다. “시끼보 · 홍콩”은 이들 공장이나 인도네시아의 MTI가 생산한 편성지를 중국의 일본계 공장에 공급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해왔다. 앞으로는 이 업무 외에 광둥성에서 봉제까지 일괄 생산한 제품을 일본기업에공급하는 업무도 강화한다.